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0월 23일 (제86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동굴과 터널

동굴과 터널은 분명 다르다.

고난이 닦혔을 때 어떤 자는 그것을 동굴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터널 삼는 자가 있다. 고난에 눌려 기쁨을 잃은 자는 동굴 속에 갇힌 비관적인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터널을 통과하는 낙관적인 자다. 이는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이것 밖에 안 남았어.” 하는 자와 “물이 아직도 반 컵이 남았어.” 하는 자의 차이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살다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속수무책인 고민들로 심신이 지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굴 속에 갇힌 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종파 인하여 더 빨리 가겠네’라는 찬송이 있듯,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한 요셉, 그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결국 총리자리에 올랐다. 불편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적응력을 키웠던 요셉을 생각하고 롤모델 삼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므로 터널을 통과할 때 감사하자.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닦듯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라고 고백하자.

나 역시 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고난이 쉽지 않음을 잘 안다. 그러나 경험의 결과를 털어놓자면, 그것은 동굴과 달리 출구가 있다는 것이다. 터널을 지날 동안 감사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태양이 빛나는 터널 밖의 세상, 소나기가 지난 후에 무지개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진리다. 또한 터널에는 오직 한 길만 있어 그 길만 따라가면 밝은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사슬이 풀리게 된다. 그러니 기도하며 인내하자. 터널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는가.

분명한 목표, 평화통일!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통해 현재 목사님의 목표는 ‘평화통일과 건강회복’이라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목표라면 이는 곧 교단적인 지향점이다. 건강문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목표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드려야 할 사안이지만, 평화통일은 우리 교단 전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추진해야 할 거시적 사안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3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하여 그동안 7차에 걸쳐 지속해온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통일을 원하시며,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러

다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통일전망대 출입수속을 마치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언덕을 올랐다. 오른쪽에 펼쳐진 동해바다에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통일전망대에 도착하였다. 날씨가 좋아서 시정이 매우 좋았다. 북쪽으로 눈을 돌리자 금강산 자락의 구선봉(낙타봉)에 해금강이 지척으로 보였다. 달려가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은 곳이었다. 안내방송을 통해 휴전선 인근 지리지형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는 전망대에서 내려와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통일전망대를 찾아 우리 교단의 목표인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

그러했다. 휴전선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마친 우리 모두는 벅찬 가슴을 안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명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찬만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기도성회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셨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그런데 물이 끓기 전에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다. 지금 북한이 저 난리를 치고 주변 강대국들이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것은 물이 끓기 위한 전조현상이다. 비록



우리는 통일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였다(2016년 10월 17일)

하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지난주일 우리는 그날의 영상을 다시 보며 금지와 자부심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에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했다. 쏟아지는 비를 마다않고 헌신 봉사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튿날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열려버린 하늘과 작열하는 태양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믿는다.

다시 한주 후, 17일(월) 아침 일찍,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다시 모여 강원도 고성, 휴전선 인근의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전날 내리던 비나 오전까지 흐린 하늘은 마치 기도성회가 열렸던 그때의 분위기와 흡사했다. 그러나 우리가 고성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또다시 활짝 열려 푸른 하늘과 바

하고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전망대에는 일반관람객이 많은 관계로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고 모두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통성으로 합심기도를 마친 후, 이시대 목사님은 기도한 것을 믿고 다함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고 선창하셨다.

“다 두 손을 들고 휴전선을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휴전선은 열릴지여다, 열릴지여다! 평화통일의 길은 열릴지여다, 열릴지여다!”

정말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장면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이기에 더욱

우리 눈에는 온통 위기국면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그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반드시 우리 세대에 평화통일은 온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셨으며,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전심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했을 뿐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 벌써 7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표는 없다고 믿는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 ~ 12월 1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1:5~13)

분명한 목표와 모호한 목표의 차이

“올해 네 목표가 무엇이나?”
지난 주 저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주의 종은 “부흥이요.”라고 답했고, 어떤 성도는 “부자 되는 거요?”라고 답했습니다. 참 모호한 답변입니다. 더는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느 장로는 “빌딩 사는 거요.”, 어떤 집사는 “아내가 병에서 낫는 거요.”, 영상팀 한전도사는 “HD(고화질) 영상시스템이요.”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모호한 목표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대충 입력해서는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 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말해야 합니다. 또한 ‘120% 부흥’이라고 말한 인천의 장영국 목사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활을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란 인생의 나침반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가늠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7~8). 삶의 목표를 상실한 자, 목표가 애매모호한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필요’의 어머니는 ‘기필코’라는 아들을 낳는다

소경 바디매오는 여리고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는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디매오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막10:51)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하셨습니다. 그 때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빠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니 소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

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7~9).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함께 주사 열왕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 모세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들이 없어 끝탕을 하던 한나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입다가 구한 것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었습니다. 수로 보니까 여인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딸의 병 낫기만을 갈망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드린 자는 자기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떡을 먹이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해 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뭘 먹을래?” 하고 물었을 때 “아무거나요.” 하는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피자’, ‘치킨’,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사줄 거 아닙니까? 언젠가 어느 장로를 제 차에 태우고 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어디다 내려줄까?” 하고 물었더니, 그 장로가 “아무데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데나 내려줬습니다. 택시 잡기도 모호하고 버스노선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전화해서 잘 들어갔냐고 했더니,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생해도 싸네. 분명한 사람이 되게나.” 하고 일침을 놨습니다.
사람은 매사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 좋다’ 그런 소리보다 ‘분명한 사람

다’라는 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중언부언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부평초와 같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목적지가 없는 배가 표류하듯, 인생의 목표, 기도의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매일 그 자리일 게 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끔 “주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당신이 분명히 말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고게 십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사업이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청바지 장사인지, 음식장사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교회 부흥이요.” 그러지 말고, “지금 50명인데 올해 100명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세요.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 결혼을 앞둔 처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은 후에 집에 돌아가 노트에 배우자감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키는 얼마정도고, 직업은 무엇이었으면 좋겠고, 성격은 어떻고, 가족관계는 이랬으면 한다’고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자기가 기도한대로 되었다고 간증으로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분이기도 하시기에 그런 것이고, 또한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저는 요새 기도제목이 확실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통일과 저의 건강회복’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

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주실 것이고, 저에게는 30대 기력을 회복시켜주셔서 30년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적어 기도하라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은 많은 인파로 인하여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었지만, 친구를 낫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붕을 뚫는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뜻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받을 상’이 확실한 목표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힘들어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기필코’라는 근성도 생깁니다. 압북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빠가 위궤되어버린 야곱,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를 청했으나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겠다는 목표가 ‘기필코’라는 정신을 낳은 것입니다. 이 정신 앞에 하나님의 사자도 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창32:22~32).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갈멜산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해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렸고(왕상18:19~46), 엘리사는 기필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며 엘리야를 쫓더니 그의 계승자가 되어 엘리야보다 큰일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한 곳을 계속 찍어야 넘어갑니다. 여기저기 찍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목표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믿음의 유형

목회사역을 하다보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들을 접하게 됩니다. 각기 생김새가 다르
고 성품도 다르며 취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똑
같은 상황인데도 기분에 따라서 표현이 달
라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한다.”
고 하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새가 운다.”
고 말합니다. 예배시간에 설교에 감동도
잘 받지만 자신의 귀에 거슬리면 화를 내
기도 합니다. 감정에는 기복이 있어서 요
동치는 바다물결과 같이 시시때때로 변하
고 시험에도 잘 들게 됩니다. 신앙은 감정
이 아니고 철저한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
다. 환경과 관계없이 믿고 확신한 일에 거
하며 평상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기준이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는
가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값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만 생
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손실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계산
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라도 드리면 더 풍
성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
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의로운 믿음입니다. 정의
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 스스로 정의롭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므로 공동체의 화평
이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기록한바 의인
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판
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는 더 고상한 법입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연약한 지체
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
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
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
람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
라도 ‘아멘’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
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 신앙인
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너희가 나
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
의 생각이나 의지와 모든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
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유형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
습니까?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신앙
으로 잘 믿는다 착각한다. 아버지를 자기
뜻대로 모신 아들처럼.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총회장 목사님
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윗분이 인정하는 것
이 옳다고 하는 말이다. 성경에도 자신의
생각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으니 잘하고 있다’고 했던 자
에게 ‘불법을 행한 자야 너를 도무지 모
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마7:21~23).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
대로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을 이
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후7:10).
우리 이제 자아적인 각각의 신앙을 벗고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신앙
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그분께 영광
을 돌리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끓는 물주전자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
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와트는 거기서
집을 끌고 가는 증기기관차를 보았다. 번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다. 그
러나 프랭클린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보았다. 어느 날 조각가 로맹은
한 바위 앞에 섰다. 로맹에게 그 바위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한 젊은
이로 보였다. 얼마 후 이 바위는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 ‘생각하는 사람, Le
Penseur’이 되었다.

다 본다고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다. 평
범한 현실 속에서 화려한 미래를 볼 뿐
아니라, 그 바라보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시선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성공자들의 특징이듯이 말
이다.

하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
선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 모습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지
금은 초라하고 작은 목동이지만 왕처럼
기름을 부으셨다. 새월은 무심히 흘러서
여전히 다윗은 양을 쳤고, 형들은 건장하
게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듯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지냈다. 그러나 하나님
의 기름 부으심, 그 약속의 말씀은 살아

있었다. 유효했다. 온 세상은 죽은 듯 하
나님의 움직임을 눈치 채지 못했지만, 하
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획하신대
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셨다. 그 분이
바라본 그 시선대로 세상과 다윗을 이끌
어 가시고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하
나님의 시선은 이처럼 역동적인 힘이 있
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 사
건이 되고 역사가 되듯이, 하나님의 시선
은 반드시 사실로 이루어진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작
품 ‘모나리자’는 신비의 미소로 유명한
그림이지만, 특이한 화법으로 그려서 어
느 방향에서 봐도 시선이 관람자와 마주
친다. 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나리자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느낌을 갖는다. 아마
도 하나님의 시선이 이와 같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를 향해 보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불
꽃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호와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도
다”(시34:15).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당신은 행복합니까?

한 부부가 숭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
아 80여 평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였다. 거기다
최고급 오디오세트와 최고급 커피머신
을 사서 베란다를 테라스 카페로 멋지
게 꾸몄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이 시설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 후 집에 무
엇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
래서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갔
는데 이게 웬일인가! 가정부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잔을 뽑아 마시며 베
란다 테라스 카페에서 집안의 온 시설
을 향유하며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작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들은 더 큰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오디오, 더 멋진 테라스 카페, 더 근사
한 커피머신을 사기위해 밤낮으로 열심
히 일한다. 그렇게 살다 언제 죽을지 모
른다.

지금 당신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
다. 그러나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 있다. 그러나 우

리는 항상 ‘나중에’ 한다. 좀 더 벌어서
누리고, 조금 있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겠
다 한다. 아니다. 지금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또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감사는 배워야 한다. 행
복해지고 싶으면 감사를 배워야 하고,
우리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개선해야
한다.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
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그것들은 되레 파
멸의 노를 짓는 셈이 된다. 다른 어떤 공
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
워야 한다.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당신
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그의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법,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살전5:16~18) 라고 말씀하
신다. 우리 모두 다 지금 행복했으면 한
다.

임택환 목사
cjcc1004@hanmail.net

경고를 무시하면...

태풍 차바가 지난 뒤, 10월 초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와 울산을 거쳐 부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차바가 지나간 날은 10월 5일, 영화제의 개막식은 10월 6일이었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차바가 휩쓸고 간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던 중에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리던 '비프 빌리지'가 태풍 차바로 인해 모두 파손되어 행사장소를 이동한다는 내용이었다. 뉴스와 신문을 통해 본 비프 빌리지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 멋지게 차려놓은 행사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해운대에 도착하여 철거되고 있는 '비프 빌리지' 컨테이너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주최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대안 없이 매년 그랬던 것처럼 '비프 빌

리지'를 설치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태풍이 지나쳐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접고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제 개막식에서 많은 사람들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며, 복구에 모두가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복구를 강조하기보다 먼저,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를 하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폐허가 된 '비프 빌리지'를 돌아보면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는 그 말의 무게감을 새삼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불감증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그 메시지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

는 경향이 있다. 사소하게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경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경고 등, 우리 삶을 위한 경고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폐허가 된 '비프 빌리지'를 보면서 나에게 울려했던 경고의 메시지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성경 속에도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렘26:1~7). 누군가의 말과 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도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그 경고가 나를 무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본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세상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에서 한 번 나온 말로 다시 주위담을 수가 없고, 둘째는 시위를 떠나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붙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직도 젊고 건강하다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결코 순서가 없습니다. 시종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집도 장만하고, 돈도 모으고, 자식들 덕 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돈 모아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생 끝나면 죽는다'는

속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삶을 마감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영벌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 Global Study ::

✧ 생각이 설계사면 말은 건축가다 합작으로 명작을 만들라

If your mind is the designer, your word is the architect.
Make a master-piece with the combination.
假如想法是设计师,话语就是建筑师。
一起合作建造出名建筑来。

✧ 말을 잘 길들여야 명마가 되듯이 내 인생도 말을 잘 길들여야 멋진 삶이 전개된다

Like a good horse, that had to be trained,
you also have to train your words to have a good life
就像好好训马,才可以成为名马一样,
我的人生也是要好好地培养说话的习惯,才可以展开幸福的人生。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 평신도 묵상노트 ::

전직 무당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매의 간증에 의하면, 귀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서약식인 내림굿을 받을 때, 그녀는 많은 정성과 돈을 들였다고 한다. 여러 벌의 비싼 옷,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여서 주변의 무당들을 초대하여 몇 시간의 긴 의식을 치렀단다. 이런 성대한 의식을 통해 귀신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참신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는 영접기도는 너무나 간단하여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냥 마음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것에 '정말 그것이면 되나?'고 몇 번이나 물었다고 한다. 일개 미천하고 하찮은 악령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서약식도 그렇게 복잡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전지전능 절대자 참신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식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가 구원 받는 일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왜냐면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손수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준비는, 당신께서 외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 이루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반성이 많이 되었다. 나는 거저 구원을 받았고, 지금이 순간까지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다. 쥐꼬리보다 못한 지성과 도

덕성으로 타인을 알보고, 쉽게 질타했다. 그것은 지성과 도덕성이라는 그럴 듯한 모습으로 고상한 척,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자리하고 내 안 깊이 숨어 자기의, 자기애, 교만, 비판, 정죄하는 마음을 주면서 각종 악한 짓을 했다. 이제 그 단단한 요새를 부숴보리라. 하나님 당신께서 손수 우리를 위해 희생적 죽음, 완성된 제사를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친구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그 분께 넘치는 마음 주체할 길이 없이 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한다. 할렐루야!

박소향

bp650624@naver.com

하나님을 위하여

'보통도 지오바니.' 그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선생님이시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던 해, 보통도의 문하생이 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보통도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기술과 재능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하생이 된 그날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 두 군데를 보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단다." 스승은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세 번씩이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히틀러가 청중을 향해 외친 주장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라, 지도자에게 충성하라,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 강인한 용기를 가져라." 그의 주장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과 사랑과 용기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탁월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나는 과연! 내게 주신 몸, 재능,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고전6:20)?

친구를 고통 때는 시간을 들여라
친구를 비꼰 때는 더욱 시간을 들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